

食品工業과 外資導入

1. 經濟의 成長과 國際化
2. 資本 自由化란 무엇이나
3. 外資 企業의 發展形態와 進出誘因
4. 外資 企業에 對한 評價
5. 外國의 資本 自由化의 例
6. 우리나라 食品工業과 外資 導入

1. 經濟의 成長과 國際化

이것은 먼 後日의 이야기도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所謂 先進國家들의 「일」이 아니고 부러워 할 것도 아니다.

우리의 經濟氣勢가 世界經濟의 메커니즘의 變化라는 外部環境의 커다란 충격이 없는 限 90年代 入口에는 1人當 國民所得 8,000불線, 輸出은 1,000억불, 그리고 GNP는 77年の 약 10倍인 3,500억불 線에 無難히 到達할 것으로 豫見된다.

우리는 지난 15年間 年平均 40% 以上の 輸出 伸張을 通해서 年 10% 以上の 經濟伸張을 享有하여 지난해 100億불 輸出이라는 이 나라 經濟史의 새로운 章을 열었다.

이제 우리는 世界 主要 輸出國의 바스켓트 속에서 밖으로는 經濟開放의 壓力과 안으로는 國際收支의 黑字基調 및 外換保有高 평창 持續속에 지금 우리의 經濟政策支柱는 「保護아닌 支援」 즉 開放體制로의 크게 그 政策方向 전환을 模索하고 있다.

如此한 潮流 속에서 우리의 經濟도 自意이건 혹은 他意이건 앞으로 高度의 國際化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食品工業의 國際化 問題가 자주 論議되는 요지음 여기에 우리 食品工業 關係者들의 깊은 關心도 없을 수 없다. 「로마에 가



趙漢允
(農漁村開發公社副社長)

거던 로마人行勢를 하라」는 西洋의 格言이 있드시 食品工業의 國際化가 이루어지면 國際化로서의 食品工業의 行勢를 찾아야하겠기에 여기 食品工業의 國際化 問題를 資本 自由化의 諸問題와 關聯시켜 究明해 보며 아울러 食品工業의 外資導入과 그 姿勢를 考察해 보기로 하자.

2. 資本 自由化란 무엇이나

資本 自由란 國際間的 自由로운 資本의 移動을 말한다.

한나라가 外國 資本을 導入함에는 단순한 차관 형식과 外資系企業 형태의 두가지로 大分할 수 있다.

이 章에서는 後者인 外資系企業을 中心으로 하여 論하기로 한다.

外資企業이란 「外國資本이 經營參加」를 目的으로 株式을 取得한 것이라고 定義된다.

外資系企業形態는 다음 셋으로 區分된다.

가. 純外資會社

外國人 또는 外國業體(外國法人)가 자본금 95% 以上の 株式을 所有하고 있는 會社.

나. 合資會社

國內企業 또는 國內人이 外國法人과 共同出資하여 設立한 會社.

다. 外資導入會社

外國法人이 既存 國內會社의 株式을 取得한 會社.

換言하여 純外資會社란 外國企業의 完全所有 또는 그것에 가까운 형태이며, 合資會社란 joint venture로 일컫러 이는 外國企業에 依한 株式의 과반수 혹은 半分出資 또는 少數出

資의 形態로 나타난다. 한편 外資導入會社란 外國 資本이 既存 國內企業을 買收 또는 其他의 手段으로 取得하는 形態를 말한다.

위 外資企業의 세가지 形態중 開發途上國家에 對한 外資進出 政策은 대개 위 第2類型인 合資會社의 方式을 取하고 있다. 이의 理由는 進出 相對國의 自國産業 保護政策 또는 經濟나 小나라의 強한 抵抗을 피하여 우선 進出의 橋頭堡를 確保하기 위해서이다.

3. 外資企業의 發展形態와 進出誘因

가. 外資企業의 發展形態

經濟의 高度化가 수반하는 자본의 國際化 進出 과정에서 外資企業의 經營활동도 크게 變모한다.

外資企業은 本質적으로 自國本社의 國際事業活動의 一環을 形成하는 外地式業體이며 本社의 直接的인 指揮命令下에 經營되며, 이를 위하여는 現在 諸條件에 적용되는 經營이 必要하게 된다.

이의 發展단계는 上述한 바와 같이 進出 相對國의 抵抗으로 우선 合資 形式에서 出發하는 漸次로 條件이 허락하는 限 完全 所有 形態로 전환한다.

1968年 自由化 措置를 出發한 日本의 例를 빌리면 그 當時 外資系製造業총수 311社中 少數 外資의 企業 比率이 56%였으나 74년에는 24.8%로 轉換하고 反面 外資過半數 以上の 企業 比率이 同期間中 17%에서 31.2%로 擴大되었다.

如此한 事實은 外資系企業의 운동 方向을 反映하는 좋은 例이다.

外資系企業은 위와 같은 現地 子會社의 所有

權 政策을 基礎로하여 現地 市場에서 적합한 經營 활동을 영위키 위해 대개 다음과 같은 戰略을 取한다.

① 現地 政府의 承認범위 내에서 우선 資本을 進출시키고 所有하는 기술을 百分 구사하여 그나라 經濟發展에 기여한다.

② 合作 相對方의 要請이 있으면 現地 政府의 意向을 打診 출자 비율을 증가한다.

③ 合資 相對方의 信賴를 높이고 現지의 우수한 人材를 登用하며 또한 교육훈련 시킨다.

④ 아직껏 母國企業 中央集權的 體制로부터 分權主義로 이양하고 現地人에게 자극과 발전의 욕을 고취 시키며 中央 本社에 통합한다.

換言하여 위 前者 兩個는 所有權의 戰略이며 後者 兩個는 現地 市場에 적응키 위한 事業活動 즉 經營 戰略이다.

나. 進出誘因

企業은 끊임없는 利潤追求를 本質로 한다. 이의 本質 論議는 次置하고 外資企業의 進出 動機를 다음과 같은 面에서 찾아보자.

이는 대개의 경우 進出 相對國의 關稅上의 差別를 모면하려 함이 그 하나요 또 하나는 相對國의 甚한 輸出攻勢에 抵抗하기 위해서 이다.

資本 輸出의 宗主國 美國의 例를 보면 戰後 구라파復興과 구라파공동시장(EC) 創設에 依한 美國多國籍企業 進出에서 찾을 수 있으며 後者는 日本의 對美 수출 公세에 對抗하여 技術의 優위성을 확보하려는 行動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의 進出誘因要素는 進出相對國 市場의 成長性을 가장 큰 要因으로 꼽으며 域內 거점확보 높은 現地技術의 利用, 安價의 노동력, 경쟁기업의 不在, 原料의 조달, 풍부한 資金의 利用 等이라 할 수 있다.

4. 外資企業에 對한 評價

무릇 事象에는 陰陽의 異和 原理가 있듯 外資企業에 對한 評價도 論者에 따라 반드시 一致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하나의 嚴然한 事實은 外資企業이 그 進出國인 主權 國家에 對하여 여러가지 形態로 영향력을 行使하고 있음은 事實이다.

이에 對한 評價의 共通分母를 빌리면

① 外資企業은 平均 以上の 生産性과 자본 성장력을 갖고 있으며

② 相對的인 많은 輸出活動을 하고 있으며

③ 高度의 技術과 關聯되어 있어 效率的인 企業範疇에 속해 있다라고 評價하고 있다.

한편 否定的인 酷評者는 「한 國家는 如何한 條件으로서도 自己 國境 內部에 企業을 所有하고 經營하는 外資를 許容해서는 않된다. 이들은 經濟發展이란 美名의 道具가 될 수 없으며 이는 그 나라의 富을 뺏고 또 이를 계속하기 위해 pipe line을 놓고 있음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如何던 各者의 極端의인 見解가 있다하되 冷靜한 姿勢로 外資企業의 메리트를 究明하면 대개 다음과 같은 것으로 集約될 수 있다.

가. 生産 流通 經營面

A. 肯定的인 面

① 國內技術 水準 向上 유도

② 규모의 經濟性 및 경쟁력의 向上, 先進 産業導入으로 産業近代化 促進

③ 資本 코스트의 절감

④ 現代的 및 合理的 經營도입

⑤ 유통기구의 개선

B. 否定的인 面

① 外國 技術에의 예속

② 과당경쟁 격화와 國內産業의 破産, 經濟 분야에서의 外國 獨占 초대

③ 國內 금융시장이 外國 企業의 強大한 영향하에 놓임.

④ 外資에 依한 經營 支配

⑤ 資本力에서 國內 企業은 外資企業을 감당 못함.

⑥ 外資는 國內 業界 질서를 혼란에 빠트림

⑦ 外資는 國內産業 等を 阻害한다.

나. 貿易面

A. 肯定的인 面

① 生産性 向上으로 輸出 增大

② 多國籍企業의 世界的인 마케팅 조직을 利用하여 수출 확대.

③ 輸入 代替의 촉진

B. 否定的인 面

國內 수출은 外資系 企業에 依해 저항을 받음.

다. 勞働者 및 消費者의 面

A. 肯定的인 面

① 고용 수준을 높임.

② 높은 임금으로 國內 임금제도 合理化 유도.

③ 生産 流通面의 合理化로 인플레이 억제 기여.

④ 新製品의 도입 또는 製品의 改良으로 소비자 이익 기여.

B. 否定的인 面

① 國內노사 關係 마찰 야기

② 마찰失業의 增大

③ 外資企業이 管理 유도의 가능성.

5. 外國의 資本自由化의 例

여기 資本 自由化에 對한 外國의 例를 들어

이웃 日本의 經驗을 보기로 하자. 筆者의 偏狹인지도 몰라도 日本의 것을 引用함을 「自尊心」이라는 잠재의식이 動하지 않은 것은 않이나 그들은 敗戰後 달라의 兩傘 밑에서 成長하고 그 高度成長은 外資의 숨겨있는 料理에 依해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國際市場再分割 경쟁에서 頭角을 나타내고 오히려 資本輸出國을 逆襲하며 더 나아가 資本의 自由化를 앞장서 高唱하게 된 그들의 經驗은 지금 經濟의 國際化를 向해 꿈틀거리는 우리에게 좋은 吟味의 對象이라고 생각된다.

日本은 1969年 以來 本格的으로 資本 自由化를 向한 실마리를 풀면서 72년에는 例外的 四種(農林水産業, 鑛業, 石油業, 皮革製品業)를 除外하고, 外國의 直接投資를 開放하였고 76년에는 이를 食品産業 및 農産物에까지 이르게 하였다. 프랑스의 著名한 저널리스트 「J. J. 세르방 쉬레베」는 그의 著書 「아메리카의 挑戰」에서 「美國은 越南에서 아무것도 얻을 없이 물러간다. 그러나 구라파에 進出한 美國의 企業은 머지않아 主人인 구라파를 追放할 것이다.」 즉 구라파는 美國의 자본과 기술과 경영에 의해서 支配되고 있다고 警告한 바있다.

日本도 資本 自由化의 前夜에는 「쉬레베」의 思考에 못잡혀 이에 對한 「外壓」에 神通한 나쇼날 콘센서스(國家的意見의 一致)도 찾지 못한채 右往左往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外資에 依한 國際 競爭力의 培養과 戰略産業의 育成으로 累積되는 무역수지의 黑字는 「円高」라는 日貨의 威勢를 떨치며 이제는 資本 自由化=나쇼날 인터레스트(國家利益)라는 答案을 내놓고 있다.

여기 그들의 自由化 過程을 60년대부터 풀어본다.

50年代 後半 重化學工業의 實現으로 産業構造의 先進化와 國際收支 改善에 힘입어 從來

의 國際收支 改善業種, 重要産業, 公共事業發展에 기여도가 큰 業種에 限해 인가하여 오던 外資法을 68年 改正하여 日本經濟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은 限 認可原則을 세웠다.

(1) 第 1 次 自由化

1968년에 外資 도입은 外資比率 50%를 原則으로하고 實質적으로 新設企業일 것과, 同一業種의 通常規模보다 크거나 新技術에 依해 國內産業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운영방식이 外資側에게 不當하게 有利하지 않을 것 등을 骨字로 하였다. 이 結果 우선 電子製品, 合成섬유等 33種이 선정되었다.

(2) 第 2 次 自由化

이어서 70년에는 海外進出 可能性이 높은 業種과 自國의 경쟁력이 弱한 業種을 追加하여 의류기, 玩具, 食品에는 햄 소세지 등 155種을 追加하였다. 이 措置로서 日本은 自由化를 向한 本軌道에 進入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自動車 컴퓨터 石油化學 等 産業分野는 保護를 取하는等 소극적인 態度였다

(3) 第 3 次 自由化

이듬해인 71년에는 既存國內 企業에 對한 外國人 株式 取得 規定이 20%에서 25%未滿으로 完化되고 自由화가 相當히 困難한 業種을 除外하고는 全部를 自由化하였다. 그 結果 自由化의 對象은 524個 業種에 達하고 自由化比率는 全業種의 80%에 이르렀다.

(4) 第 4 次 自由化

72년에는 政策의 方向을 「自由化의 마무리해」로 定하고 自由化業種 選定을 Positivist에서 Negative list로 轉換하고 電子計算機, 農水産業을 除外한 全産業의 自由化를 斷行하

였다.

그러면 이와같은 措置에 이르게된 그 背景은 무엇인가 이는 다름아닌 그들의 經濟가 豫想外로 國際 競爭力에 自信을 얻었고 한편 國際通貨 不安定에서 起因되는 海外로 부터의 「自由化 壓力」에서 緣由하였다고 할 수 있다.

重言하여 한때 그들은 自由化 措置를 놓고 「黑船의 出現」(19世紀初 鎖國 日本에 門戶開放을 要求하여 페루제독이 몰고온 美國의 鐵船)이니 「外資의 來襲」이니하며 恐怖에 떨었던 그들도 이제는 自由化는 「現實問題로 받아들이고 그 對應等에 全力을 다한다」에서 「外資와의 共存共榮」으로 옮기고 一步前進 「受勢에서 攻勢」로 國際化, 完全自由化를 提唱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그들의 自由化의 程度는 保護産業의 最後堡壘였던 果汁等의 農產品, 小賣業까지 이를 받아 드리고 있다.

이제 國際化를 바라보는 우리의 立場에서 그들의 그 過程에 무엇인가 錯雜한 感을 禁치 못한다.

위에서 日本의 自由化 過程의 源泉을 그들의 경쟁력과 國際收支 等으로 說明한바 있다. 그러나 한편 이의 視覺을 經濟의 次元에서 哲學의 次元으로 옮겨볼때 그들이 오늘의 그 狀態를 이끌게한 참다운 源流는 「個別利益→集團間的 對立→抗爭→妥協→調整」의 過程에서 그들이 發揮한 우수한 精神力이 「힘」이 되어 그것이 「나쇼날 인터레스트」에 歸着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參考로 日本의 外資企業導入 現況을 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다음 兩個表의 比較에서 과거 16年間的 도입실적 <表 1>에 比해 76年 1年分 <表 2>의 규모가 爆發的으로 팽창되어 있음은 그들의 自由化의 活發相을 窺知케 한다.

以上에서 길게 言及한 外資受容의 밝은面,

〈表 1〉 外資系 企業株式 取得現況
(1950~1976 累計)

區 分	全 產 業	食 品 工 業
經營참가 目的 株式取得(件數) (금 액)	(5,976件) (1,695,193천불)	(126件) (73,592천불)
其他 株式取得 計	22,905,503천불	24,600,702천불

〈表 2〉 (1976年度分)

區 分	全 產 業	食 品 工 業
經營참가 目的 株式取得(件數) (금 액)	(652件) (195,686천불)	14件 7,025천불
其他 株式取得	4,799,522천불	

(자료: 通産省公報 77 日本)

어두운面 等 諸問題는 여기 주어진 本論인 우리나라 食品工業의 外資導入 問題에 있어 조금이라도 參考가 되었으면 하는 意圖에서였다

6 우리나라 食品工業과 外資導入

우리나라 食品 工業은 아직껏 國民 產業의 範疇로 取扱되어 保護의 품속에서 자랐다.

이제 同工業의 外部露出의 소식은 이를 「寒波來襲」이란 豫感으로 받아드리는 意見도 있겠으나 한편 일부에서는 이를 우리 食品工業의 飛翔을 告하는 黎明期로 받아드리고 있다.

여기 우리 食品工業의 外資受容 姿勢를 言及하기에 앞서 잠시 日本 食品工業의 外資導入狀況을 參考로 보기로 하자.

日本食品 工業의 外資系도입은 〈表 1〉에 記述한 바와 같이 76年 現在 126件이며, 이들 企業이 全食品 生産額의 2.3%의 生産체아를 占하고 있다. 한편 도입 業種과 外資의 比率

〈表 3〉 食料品 製造業 外資系 企業現況(日本)
(77年3月現在) 자료(農水産物貿易 77. 日本)

業 種	外資比率				
	95% 以上	50~95%	50% 以下	25~50%	25% 以下
乳 製 品	8	3	—	4	1
食 肉 加 工	6	1	1	2	—
전 분 工 業	2	—	—	1	—
식물성 유지 가공	1	—	1	—	—
과 실 야 채 가 공	8	1	1	5	1
곡 류 가 공 · 菓 子	16	5	1	9	—
인 스타 트 커피	2	1	—	1	—
청 량 음 료	12	5	3	3	—
사 료	4	2	—	1	1
음 식 업	22	3	2	12	2
其 他	27	9	2	7	5
合 計	108	30	11	45	11

은 다음 〈表 3〉과 같이 나타나 있다.

위 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日本도 食品工業은 그들의 保護産業으로서 72년에야 完全開放하기에 이르렀다. 그 結果 乳製品, 肉加工, 스프, 인스타트커피, 飲料品 等 成長部門을 中心으로 광범위한 分野에 걸쳐 外貨의 進出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스타트 커피, 청량음료 스프 産業에 있어서는 外資系 企業이 國內同産業의 位置를 크게 흔들고 있다. 이와 같은 樣相은 우리 食品 工業界에도 決코 他山之石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제 우리의 經濟가 100억불 輸出을 마크하고 91년에 1,000억불 輸出의 野心을 품고 經濟의 國際開放을 앞둔 曠野에 此際에 굳게 門을 닫았던 우리의 食品工業이 여기 門을 叩기 시작했고 그것을 활짝 열어 제칠날도 멀지 않았다고 각오해야 될 것이다.

이 時點에서 同工業의 오늘의 課題는 外部受容에 對한 우리의 「叡智」와 이의 슬기로운 「消化」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여기 이 課題를 위해 다음 두가지의 提示로 要約해 본다.

(1) 外資受容窓口的 新證 선택

食品工業의 外資 收容은 이의 初期段階에서는 그리고 아마도 相當한 期間 受容 窓口를 신중히 검토할 必要가 있다. 그 理由는 다음과 같은데 있다.

첫째, 外資收容의 과당경쟁을 피하고 신중이 선택된 窓口로 하여금 도입 條件의 有利한 高地를 確保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國內 食品工業의 命脈을 위협하는 無分別한 도입을 억제하기 위해서이다.

換言하여 有利한 條件에서 導入하고 또한 導入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컵속의 태풍」格으로 서로 다리를 잡아 당기는 醜態는 피하게 하여야 한다.

(2) 食品工業 支援을 위한 制度的 裝置의 設置

우리는 그동안 食品工業의 취약성을 많이 들어왔다.

其實 同工業의 國內他製造業 對比 뿐에서만 아니라 同工業의 國際比較에서도 企業의 生産인 安全性, 成長力, 收益性 그리고 제품의 價格面에서 다음 事實(表 4參照)과 같이 아직 상당히 불리한 立場에 처해 있다.

〈表 4〉 食品工業의 國際比較

區分	國名	韓	國	美	日	西	獨
他人자본구성비(%)		82.9		51.1	76.6	64.5	
총자본 증가율(%)		24.2		3.2	20.6	4.9	
經常利益增加率(%)		4.9		10.1	6.4	—	
食品가격추이(1970~75)		2.31배		1.65배	1.64배	1.28배	

자료: 韓은 企業경영 分析
食品工業 總合 統計年誌 日本
註: 韓國은 1976 其他國 1975

따라서 지금 당장 同工業의 現狀態에서 이를 外部와의 경쟁에 放置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일이 어서 이의 體質強化가 至急히 要請된다.

이로서 우리나라 食品工業은 外資와 共榮하고 外資를 利用하여 雄飛하는 時節을 마련하리라고 생각한다.

—食品·添加物生産實績報告 양식 供給—

韓國食品工業協會는 全國食品製造業體의 편의를 도모해 주기 위해 「食品·加添物 生産실적 보고서」 양식을 제작하여 실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필요로 하는 業體에서는 아래 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① 供給 價格: 卷當 400枚, 3,000원
- ② 申請 場所: 서울特別市 中區 忠武路 4街 125-1(進洋아파트 610號)
- ③ 代金納付方法: 對替口座(計座番號 610501)를 利用하시거나 本協會로 直接 納付하시면 됩니다.

1978年 7月 日

社團 法人 韓國 食品 工業 協會